

# 정보인프라 구축해야 출판세계화 앞당겨진다

경복궁과 북촌마을, 미술관, 인사동 등 문화인프라가 잘 구축된 서울 종로구 사간동. 외국인들이 한국을 체험하기 위해 많이 찾는 이곳에 그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하나 있다. 한국의 엄선된(셀렉션) 문화를 책과 영화, 음악의 형태로 경험하게 해주는 서울셀렉션(www.seoulselection.com)이 그곳이다. 출판문화회관 지하 20평 남짓의 공간에는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 천상병의 《귀천》을 비롯해 한국의 자연과 문화를 담은 사진집, 구입하기 힘든 한국 관련 서적 등 볼수록 탐나는 책들과 영화 DVD, 음반 등이 전시되어 있다.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를 궁금해 하는 외국인들의 사랑방 구실을 하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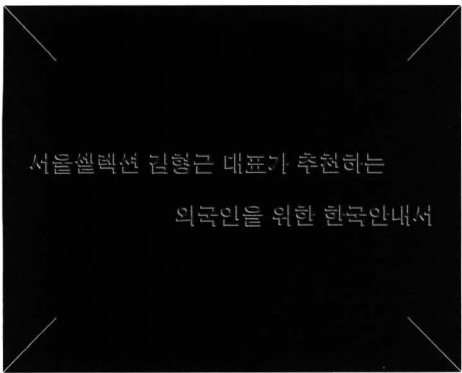
서울셀렉션 김형근(41) 대표는 연합뉴스에서 14년간 문화예술분야를 취재하며 영문뉴스를 쓴 기자출신이다. 김 대표는 기자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한국 관련 영문도서의 절대적 부족과 한국적인 것에 대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서울셀렉션을 열었다고 한다. 그가 생각하기에 한국적인 것은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문화다. 그곳에 우리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보편적인 세계인의 정서가 있다고 그는 보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은 아주 인터레스팅 Interesting한 나라입니다. 짧은 시간에 산업화를 이루었고, 또 짧은 시간에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국토, 생활 곳곳에 전통이 살아 있습니다.”

김 대표의 안타까움은 여기서 시작된다. 이렇듯 ‘인터레스팅’ 한 문화가 언어(문자)의 장벽에 가로막혀 단지 대한민국이라는 영토 안에 갇혀 있었다. 가령 외국이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중의 하나가 ‘화염병’으로 알려진 민주화 운동이다. 하지만 막상 외국인들이 한국의 치열한 민주화과정을 알고 싶어해도 그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책이 없다. 그나마 올 3월 전순옥 박사(고 전태일 씨의 여동생)가 번역한 《A Single Spark—The Biography of Chun Tae-il(한 줄기 불꽃 전태일)》이 나왔을 뿐이다.

“설마하겠지만 다도 茶道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도 관련단체에서 나온 회보형식의 간략한 책자 이외에는 외국인이 공부할 만한 책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건 그 문화를 이해하고 접하려면 책이 가장 빠른데 우리는 기본 콘텐츠에 대한 번역작업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지요.”

김 대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작업은 우리 출판계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다. 국내출판이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 대표를 만들 듯 몇 권의 책에만 공을 들여서는 안 된다. 정보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어야 외국인들도 쉽게 우리나라 문화를 접하고 또 그 속에서 매력



<b>문 화</b>	한국문화의 특성을 키워드로 정리한 《An Illustrated Guide to Korean Culture》(학고재),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사진과 함께 보여주는 《The Beauty of Korea》(한림출판사)
<b>문 화</b>	구상, 천상병, 김지하, 고은 등 시인의 작품을 모은 《한국 현대시 총서》(답게), 이상의 《날개》, 박완서의 《그 가을의 사흘동안》, 조정래의 《유형의 땅》, 이규영의 《어두운 기억의 저편》 등을 모아 놓은 《한국현대단편소설선》(지문당),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를 영역한 《The Fisherman's Calendar》, 전통 시가를 엮은 《Shijo Rhythms》, 신라향가와 고려가요, 조선 시조를 포켓 사이즈에 담은 《Mirrored Mind》(이스트워드)

을 발견할 수 있다. 김 대표는 결국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가 한국출판의 해외진출에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김 대표는 서울셀렉션을 바탕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 1900~1950년 사이에 한국에 살았던 외국인들의 삶 출간, 국내 저작물의 번역출판, 교포시장에 한국도서 판매, 해외진출 출판사를 대상으로 한 번역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김홍경의 《동의東醫에의 초대》,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원작인 박상연의 《DMZ》, 조양희 《도시락 편지》 등 서울셀렉션을 통해 번역출간을 준비하고 있는 책들도 여러 권이 있다.


“국내도서 중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분야로 우선 아동도서를 들 수 있습니다. 38세대가 사회 주도층으로 자리잡음과 동시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성장을 거둔 분야죠. 이제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게 한국의 문화를 해외로 수출할 때가 됐습니다.”

한의학, 고급 전통문화 등도 김 대표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분야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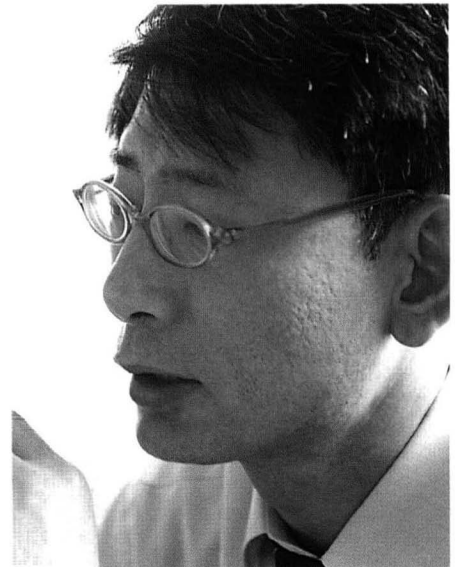
또 하나 서울셀렉션이 하는 일 중에 주목해야 하는 건 바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뉴스레터 발송이다. 뉴스레터는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국의 각종 문화소식을 전하는 일반 뉴스레터와 출판사 및 에이전시를 대상으로 한 전문 뉴스레터(Weekly Book Info)로 나누어진다. 커뮤니케이션즈와우에서 나온 《Tales from the temples》(원제 '절집 옛 이야기')의 일러스트를 그린 정경심 씨와 홍콩 출판사인 페리플러스 이디션스(Periplus editions)를 연결해 준 일은 뉴스레터의 중요성과 효과를 잘 보여준 예이다.

“페리플러스 쪽에서 코리안 칠드런 패이버릿 스토리(Korean Children Favorite Story)의 일러스트레이터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Tales from the temples》를 소개한 뉴스레터를 보고 연락을 해왔더군요. 50년 전에 일본의 동화도 같은 형식으로 나왔는데 유럽과 미국 등 영어권 국가에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김 대표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지속적인 작업을 바탕으로 정경심 씨와 같은 경우가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출판계는 서울셀렉션을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아직은 가능성이지만, 서울셀렉션의 성공은 단지 한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출판콘텐츠 세계화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재 신동섭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음식** 김치를 실제 조리법은 물론 문화적인 관점에서 해설한 《Kimchi, Thousand Years》(디자 인하우스), 전통 사찰음식을 엮은 《Korean Temples and Food》(정리퍼블리케이션), 한국 음식의 칼로리를 일일이 밝혀놓은 《Calorie Book》(현암사)

**전통문화** 한국의 아름다운 자수를 망라한 《The World of Colorful Delight》(한국지수박물관), 한국 선불교의 특징을 설명한 《What is Korean Buddhism》(조계종출판부), 가야금 명인 황병기를 영어로 인터뷰한 기록 《Conversation with Kayagum Master Byungki Hwang》(풀빛, 영한대역)